

## 모자제작을 위한 여성의 두부(頭部)형태 분석

안 영 실

한양여자전문대학 의상과

모자가 기성화·대중화 됨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 모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착의 기체(着衣基體)로서의 두부형태 파악이 중요하나 두부(頭部)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두부(頭部)를 계측하여 분석하고 두부형태를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이를 고려한 모자제작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여대생 123명으로 하였으며 14개 항목을 정하여 Martin의 인체 계측방법에 의한 직접계측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측치 분석결과 1980년과 비교할때 현재 두부형태는 머리 측면의 뒤통수 뿐 아니라 옆머리가 나온 역삼각형 형태로 볼 수 있으며 6.7두신에서 7.3두신으로 변화하여 점차 8두신에 가까워져 감을 알 수 있다.

2. 계측대상에 대한 모자의 치수 적합성 설문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 3그룹간 머리둘레, 좌우길이, 전후길이, 머리너비, 머리두께, 신장, 체중에서 뚜렷한 유의성을 보이므로 현재 한 치수로 제작되는 모자를 여러 치수로 호수를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두부형태도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요인분석 결과 4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둘레항목, 좌우길이, 머리두께 등 횡적 크기를 나타내는 항목, 요인 2는 종적 크기로 머리길이, 신장, 요인 3은 두부의 전

면 형태를 나타내는 너비항목, 요인 4는 얼굴부위의 길이항목으로 분석되었다.

4. 요인분석결과 얻어진 4개의 요인에서 9개 항목을 선정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3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형 1은 전체의 22.8%를 차지하며 신장에 비해 머리길이가 가장 길어 낮은 두신을 보였으며 머리둘레는 작으나 전면에서의 두부가 큰 형태로 머리와 얼굴부위가 길고 넓으며 옆 머리가 나오고 측면의 머리가 납작한 평면적인 형태이다.

2) 유형 2는 전체의 37.4%를 차지하며 전면에서의 두부가 작은 형태로 머리와 얼굴부위가 짧고 좁으며 옆머리가 안나오고 측면 형태는 머리가 튀어나온 곡면의 입체적인 형태이며 7.5두신으로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나타냈다.

3) 유형 3은 전체의 39.8%를 차지하며 두부의 횡적크기가 가장 크고 전면, 측면의 머리가 나온 형태로 7.3두신의 비례를 보인다.